



# 空士總同窓會報

發行人：韓周奭  
編輯人：姜榮植

(住所)：서울特別市 銅雀區 大方洞 358-1番地 (郵便)：156-020 (電話)：02-823-1091 (FAX)：02-823-1092 (非賣品)

## 회보 인덱스

- 2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Rational Thinking Process의 생활화와 효율성
- 3 웰빙턴 장군의母校 사랑
- 4 보라매 시절과 과학기술자의 길
- 5 21世紀에 거는 希望과 期待  
會員動靜
- 6 空士總同窓會에 바라는 마음  
棋士의 圍棋十訣
- 7 空士總同窓會 消息
- 8 母軍·母校 短信
- 9 웨딩타운 하니
- 10 平生會費 納付者 名單
- 11 揭示板
- 12 지적측량 새 천년

## 사는 意味를 생각해 보자

서 動物과 다른 것이다. 여기서 잠깐 生活이라는 뜻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살아서 活動하는 것 ② 生計를 維持하여 살아나가는 것 ③ 어느 組織에 속하여 그 構成員으로 活動하는 것이다. 끝으로 어떤 行動이나 活動을 하면서 살아가는 狀態를 말한다고 定義하고 있다.

사람은 動物처럼 存在하다가 죽어버리는 單純한 存在가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宇宙로부터 같은 民族, 그리고 自己 國家로부터 어떤 使命을 받고 이 世上에 태어나는 것이다. 즉, 우리들 各者は 내가 왜 살고 있어야 하는가 라는 意味를 定立하고 삶의 價値를 發見해야만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살고 있다는 事實 ④ 自體를 最高의 價値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에게 온갖 잘못을 저질러가면서 갖은 부정과, 사기, 공갈, 그리고 심한 협박으로 남을 괴롭혀 가면서 무엇을 하려고 사는가? 도대체 사는 目的이 무엇이나고 물어보면 살기 위해서라고 쉽게 대답할 것이다. 이런 部類의 사람들은 "삶" ⑤ 自體가 目的이므로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하려고 사는가에 對해서 는 대답할 수가 없을 것이다. 간혹 배웠다는 사람들 중에 哲學的인 問題를 다루는 척, 사람은 살기 위해서 사는냐! 먹기 위해서 사느냐! 라고 質問할지도 않은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生存만 하는 짐승들에게나 물어 볼 일이지 삶의 眞情한 價値를 追求하며 生活하는 사람에게 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사람은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理由와 目的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가야 할 理由와 目的이 있기 때문에 죽기보다 힘들었던 軍의 教育訓練課程을 거쳐 고된 使命을 완수해 오지 않았는가.

우리가 살고있는 이 現存한 現實에서 사는 理由, 즉 사는 意味가 없을 수 있겠는가. 나는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그 答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만약 없다면 찾지 않으면 안된다. 살아가야 할 理由와 目的이 定立된 사람은 自己를 바라볼 때 肯定的으로 보게 된다. 肯定的일 때는 나 自身이 멋있게 느껴지고 무엇이든지 하면 된다는 自信感이 생기고 每事에 積極的이며 進取的인 生活態度를 가지게 된다.

反對로 살아가야 할 理由와 目的을 찾지 못한 사람은 生活에 의욕이 없을 뿐 아니라 自身을 否定的으로 바라보게 된다. 그렇게 되면 每事에 消極的이게 되고 劣等과 敗北意識으로 不平과 不滿의 짜증스

러운 나뉠을 보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즐겁고 보람찬 삶을 爲해서라도 우리는 살아가야 할 理由와 目的을 分明히 認識하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平生동안 끊임없이 어떠한 狀況에 부딪히게 된다. 그 狀況은 自己가 選擇해서 할 수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만나야 하는 경우도 있다. 自己가 處하게 된 狀況을 통해서 成長·發展하는 것은 自己를 各者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自身을 꾸준히 發展시켜 나가는 積極的인 肯定的인 사람은 만나는 여러 가지 狀況을 훌륭한 自己發展의 契機로 만들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저 되는데로 無意味하게 지나칠 것이다. 사람이 生活해 나간다는 것은 自覺의 연속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사람을 自覺存在라 하는데 이는 動物과 달리 自己의 使命이나 人生의 意義를 自覺하는 能力이 있기 때문이다. 動物에게는 自己 以外의 對象을 아는 能力밖에 없으며 自覺能力은 없다. 느끼고 생각하며 식별하고 판단하여 行動하는 精神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만 自覺能力을 준 것이다. 自覺은 自己가 놓여있는 狀態나 지위, 임무 및 能力 따위를 스스로 깨달음을 말한다. 매일매일 수없이 접하는 많은 自覺 속에서 自己가 해야 할 使命을 自覺한다는 것이 가장 높고 깊은 自覺이고, 生活의 으뜸이라 하겠다.

그런데 使命이라고 하는 것은 一般的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크고 높은 곳에만 存在하는 것이 아니라 작게는 食堂에서 음식 나르는 아이들에게도 自己가 해야 할 使命이 있는 것이다. 公務員, 教育者, 聖職者, 事業家 또는 軍人 등 말은바 任務에 따라 쉽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사람은 自己의 使命이 크거나 작거나에 관계없이 自身이 해야 할 使命을 自覺할 때 보다 높은 水準으로, 보다 깊은 次元으로, 보다 성숙된 段階로 人格이 높아져 간다. 또한 투철한 使命 認識은 사람을 誠實하게, 진지하게, 용감하게, 그리고 부지런하게 만들어 준다. 使命, 즉 해야 할 일 없이는 生活는 無意味하다. 뜻이 없는 人生은 허무하고 無氣力해지기 마련이다. 정성을 다하여 誠心껏 키우는 樹은 푸른 일에 생기가 돌고 아름다운 꽃과 그윽한 향기로 주위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해주지만, 방치해 버리거나 마치 못해서 물이나 준 樹은 그 모양새가 어떨것는가. 하물며 사람이 生活해 나가는 問題에서 사는 意味도, 目的도 없이 살고 있다면 사는 맛이 날 것인가.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사는 것도, 살기 위해서 먹는 것도 아니다. 生活를 爲해서 살아가야 할



(예)총장 정재식(5기)  
항공기술회 부회장

意味와 目的을 定立해서 幸福한 삶과 산다는 보람을 찾는 데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라는 문제를 몇 가지로 살펴보고 끝을 맺을까 한다.

첫째, 산다는 것은 自覺의 연속이라고 했고, 自覺은 自己가 놓여있는 狀態, 지위, 任務 및 能力 등을 스스로 깨달은 것을 말한다 고 했다. 狀況은 끊임없이 변한다. 지금은 사관생도도 아니고, 總長, 司令官, 團長도 아니다. 다같이 손자, 손녀를 둔 고회를 바라보는 60이 넘는 自然人들이다. 단지 사관학교 선배라는 40~50年 前의 狀況의 착각 속에서 生活를 하고 있는지 후배들에게 생애 때나 위 관급 때처럼 다 큰 친자식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는 말씨를 서슴없이 하는 동창들을 볼 때 하루하루 고쳐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둘째, 사람은 세 가지의 自己가 있다고 한다. ① 自己가 생각하는 自己 ② 남이 생각하는 自己 ③ 진짜 自己. 그런데 不幸하게도 진짜 自己에게 가까운 것은 自己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진짜 自己에 가깝다는 事實이다. 그러나 우리는 自身이 생각하는 自己가 진짜 自己라는 착각 속에서 言動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다. 일상 生活에서 유의해야 할 일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德은 謙遜에서, 災殃은 物欲에서, 허물은 輕妄으로부터, 그리고 福은 儉素함에서 온다는 平凡한 理致를 늘 생각하고 있으면 좋겠다.

끝으로 人生의 5大 資產中 하나인 信用이라는 자산을 잘 管理했으면 한다. 信用은 社會生活의 기본이 되는 自己의 힘이고, 보람이요, 멋이다. 信用은 또한 人品의 제1의 測度이기도 하다. 남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해준다. 그리고 모나지 않는 肯定的이고 유순한 人品으로 발전시켜 준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여유있는 아량으로 원만한 社會生活의 原動力이 된다. 우리는 이 나라에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부끄럼 없는 健全하고 튼튼한 社會를 만들어 幸福한 人生, 보람있는 삶의 意味를 지니면서 사는 人生을 보내자.

사람이란 무엇인가라는 質問을 받으면 簡單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科學的으로 또는 宗教, 哲學的으로 說明하려면 한 권의 책으로도 不足할 것이다. 그러나 簡單하고 쉽게 단순하게 살펴보면 人間은 神과 動物의 中間程度에 位置해 있는 存在라고 說明하면 될 것 같다. 즉, 動物은 生存만 해나가기 때문에 生存과 生活를 同時에 하는 人間과는 다른 것이다.

사람이 肉體的으로 生存해 나가는 側面에서는 動物과 다를바 없다. 그러나 動物은 精神領域이 없기 때문에 사람처럼 生活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람은 精神的으로 生活를 한다는 特殊한 面에

論壇

과학적으로 생각하는 方法



문국진(2기)  
한양대학교 명예교수

미국의 한 판매원(Salesman)이 미국지도를 펼쳐놓고 50개 도시를 돌면서 물건을 팔아가 할 터인데, 어떻게 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하고 구상하고 있었다. 그러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좋은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머리에 떠올라 서 각 도시까지의 거리를 입력하여 전산기를 돌렸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그 해답이 나오지 않았다. 한 30분 내지 1시간이면 계산이 다 되어 나오리라 하고 기대하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도시를 도는 방법이 50!(오십 계승)이나 되었던 것이다. 이 값은 어림잡아도 10<sup>99</sup> 정도가 된다. 일년을 초(秒)로 간주하면 3천만 초가 되는데, 전산기가 빨라서 1초에 백만(10<sup>6</sup>) 개의 방법을 찾아낸다고 하여도 1년에 10<sup>15</sup>의 방법밖에 찾지 못하니, 100년이 지나도록 100×10<sup>15</sup>인 10<sup>17</sup>밖에 찾지 못한다. 그러나 10<sup>99</sup>을 계산하려면 몇 초 억년도 터무니없이 적은 수가 될 수밖에 없다.

지구의 역사가 45억년으로 추산되고 있으므로 이것은 우주의 연방보다도 길게 걸린다. 그래서 그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서 50개 도시를 다 돌았다. 그는 자기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아닌가를 검사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만일 다른 판매원이 그 50개 도시를 그 사람 나름대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생각하여 돌았다면 그 사람과의 비교해서 누가 더 효과적으로 순방하였는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는 과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찾기가 매우 어려울 때가 있다. 따라서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진 판단을 통해서만 최선을 찾을 수밖에 없을 때가 종종 있다. 그렇다고 모든 상황에서 과학적 방법이 비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1950년대에 미국의 유명한 물

리학자 페르미(Fermi) 교수는 시카고(Chicago) 대학에서 핵물리학 강의를 할 때 가끔 수강하는 대학원 학생에게 물리학과와는 관계가 없는 질문을 던지곤 하였다. 보기를 든다면 "이 시카고라는 큰 도시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곤 했다. 대학원생들의 입장에서 핵물리학 시간에 난데없이 피아노 조율사 이야기를 왜 나오느냐 하면서 재나름대로 그 수를 추리하고자 하지만, 종국에는 무슨 자료가 있어야지 하며 반문하게 되었다. 질문을 던지고 나서 대학원생들에게 실마리를 주기 위해 페르미 교수는 제일 먼저 이것부터 생각해 보자고 하면서 "시카고 시(市)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하고 물었다. 학생들은 이에 대해 곧 대답을 하였다. "이백만 명입니다(이 수치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내가 추정해 본 가상 수치다)."

그러면 "200만 명으로 잡고 한 가족의 평균 인구는 몇 명으로 잡는 것이 좋겠는가?" 하고 다시 묻고 거기서 "4~5명 정도"라는 답이 나오면 200만 명인 인구에서 가족수는 40~50만으로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다시 그 중간을 택해서 45만 가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이들테면 10가족 중에 피아노를 가질 수 있는 가족은 몇 가족이 되겠는가?" 하고 물어볼 수 있다. 당시의 생활 수준으로 가령 10가족 중에 한 가족이라고 하면 이를 통해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가족 수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리하여 시카고 시(市)에 있는 전체 피아노 수를 4만 5천대로 추정해 볼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으로 페르미 교수는 "피아노 조율사가 하루에 피아노 조율을 할 수 있는 피아노 대수는 몇 대나 되겠는가?" 하고 물어보게 된다. 피아노 한 대를 조율하는데 보통 2~3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하루에 조율할 수 있는 대수는 대략 3~4대로 생각할 수

있으며, 1년 중 일할 수 있는 날을 250일 정도로 잡으면 피아노 조율사가 1년에 조율할 수 있는 대수는 약 800~900대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다. 피아노는 1년에 한 번 정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4만 5천 대를 900 정도로 나누면 50이 되어 조율사의 수는 대략 50여 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학원생이 나중에 전화번호부의 직업란에서 조율사 이름을 찾아보고 페르미 교수의 추정에 의한 수가 맞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놀랐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다. 미시간(Michigan) 대학의 어느 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여러 가지 색의 옷이 있는데 어떤 색의 옷이 열(熱)을 더 받고, 어느 색이 열을 덜 받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겨울에 눈이 온 다음날 해가 쬐이는 아침에 똑같은 재질을 갖는 여러 가지 색의 옷감을 똑같은 크기로 자르고, 눈 위에 던져 놓았다. 그리고 시간을 재어 어느 색의 옷감이 동일한 시간 속에서 가장 빨리 녹는가를 관찰하여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아내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진한 색이 연한 색보다 더 많은 태양열을 흡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것을 이론적으로 알아 내려면 각 색에 따른 입사파(入射波)에 대한 반사파(反射波)의 파장 및 반사율, 또 두께를 등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단한 실험으로 복잡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좋은 보기를 이 교수는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지금까지 세 가지의 일화들 들어 사물을 보는 관점이 보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을 설명해보고자 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비단 과학을 연구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직면하는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첫째 일화들 들 것은 요즘 우리가 "전산기만 있으면 모든 것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혀 있

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였다. 간단한 수치 계산이라 우습게 보이는 것이 오히려 무한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 두번째 일화는 이론 물리학에서 추리해 가는 한 과정을 제시한 것이었고, 세번째 것은 실험 물리학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방법의 보기로 든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을 설명한 것은 비단 과학의 한 분야인 물리학에 서만 이와 같은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 방법은 비단 물리학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적용된다. 어느 경우에는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더 효율적일 수 있고 또 어느 경우에는 부딪히면서 내가 해결하는 방법을 따를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 즉, 복잡하게 생각을 해서 해답이 나오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다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함으로써 가까운 데서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독자 여러분도 이를 통해 당면하는 현실 속에서 앞에서 언급한 일화들을 떠올리면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때에 맞는 적절한 "방법"의 선택은 여러분들의 판단에 달려 있다.

Rational Thinking Process의 생활화와 효율성

현대인들은 오늘과 같이 복잡한 사회구조와 양태 속에서 무엇인가 매일 직면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것이 개인의 사생활이건 직장 문제이건 사회생활로 이어지면서 사소한 신변잡사로부터 크게는 국가경영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올바르게 처리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막대한 비용과 노력을 지拂한 채 시행착오를 반복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최근에 빈발하고

있는 항공기 사고나 신공항공건설의 System Integration 문제로 인한 공기 지연, 경부고속철도의 노선변경에 따른 국고손실, 각종 교통 건설의 안전의식 불감증에서 야기된 대형참사 등,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이 21C 정보통신혁명의 대변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단 한번의 잘못된 의사결정이 얼마나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반복적으로 주고있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의 문제는 또 어

떤가?

열풍처럼 번지고 있는 벤처창업과 주식투자 문제, 자녀의 학교선택, 취업, 결혼문제에서부터 주택구입 등 우리의 삶이란 끝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의사결정의 연속이라고 보아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과연 우리 주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 해결이나 의사결정의 과정이나 형태를 관심있게 살펴본 적이 있는가?

본인은 과거 군생활과 기업체



최인일(13기)  
미시건어학원 원장

근무경험을 통해 본 느낌은, 당시 의사결정 Post에 있던 대부분의 지휘관이나 경영자들의 문제

(3면에 계속)

# 웰링턴 장군의 母校 사랑



金國璋(7기)  
명지전문대 교수

日本 社會에는 세 가지 특별한 큰 행사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신사참배요, 둘째는 프로야구 결승전이고, 셋째는 NHK 방송의 가요축제전인 그것들이다. 물론 이것들이 일본의 공식적인 행사도 아니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 日本列島가 화끈하게 달아오를 정도로 온 국민이 한꺼번에 熱狂하는 빅 이벤트(Big Event)가 되곤 한다는 것이다. 어느 사회학자는 일본 사람들이 이 세 가지 행사를 통하여 스스로 一體感을 형성하며 자연스럽게 大同團結을 이루는 혼연하고 있는 셈이라고 분석한 바도 있다.

우리 나라에도 설이나 추석같은 名節의 고향(조상)찾기 열기는 일본 사람들의 신사참배 열기보다 뜨거운 열기를 더한다. 또한 프로야구나 高校野球와 같은 열광의 이벤트도 있다. 지난 한 때 高校야구의 열기는 대단했다. 프로야구가 생기면서부터 그 열기가 다소 식기는 했지만 아직도 高校야구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이 사실이다. 高校야구 경기장을 가득 채우는 인파와 뜨거운 응원 '모교의 승리'를 위하여 한다면 아주 단순한 이유와 나도 '모교의 승리'를 위하여 한테 한테는 순수한 참여의식의 발로에서 연유된다. 야구는 어린 고등학생들이 하는 데 정착 흥분하는 것은 그 학

교 선배나 어른들이나 참으로 신동한 일이기도 하다. 선수들은 자기 학교의 명예를 위하여 뛰고 선배들은 그들을 응원하기 위하여 목이 쉬고 손바닥이 으스러진다. 금방 일체감이 형성되고 하나로 뭉쳐지기 마련이니 정말로 아름답고 호젓한 광경임이 틀림 없다. 거기에는 아무런 사실도 있을리 없고 計算된 목표가 있는 것도 아니다. 오직 渾然一體가 된 응원만이 있을 뿐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대개가고 모 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高校야구와 인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고등학교가 야구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競技場이 메어지는 것은 자신의 母校가 출전하지 않았더라도 고향팀을 응원하기 위하여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정치하는 사람들 사이에 흔히 있는 地域感情이나 패거리意識 次元의 것은 결코 아니다. 단지 모교에 대한 애정과 고향에 대한 향수가 한데 어우러진 순수한 에너지 발산의 한마당일 따름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자기 출신고교·고향 등에 커다란 意味를 부여하며 살아간다. 따라서 모교의 승리·고향팀의 우승이 곧 자신의 승리요, 자기의 명예와 직결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어린애들처럼 함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며 열광하는 것이다.

"영국의 승리는 이튼 교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유명한 말이 있는 것을 보면 영국 사람들도 例外는 아닌 것 같다. 이 말은 워털루戰鬪에서 나폴레옹軍을 격파한 웰링턴 장군이 한 말이다. 이튼교(Eton Public School)는 우리나라의 사립고등학교에 해당되는 것으로 全校生이 기숙사 생활을 하며 엄격한 校則과 紳士道 教育의 시행으로 이름난 학교다. 특히 이 학교는 유명한 학인과 정치가들을 많이 배출한 名門校로서 웰링턴 장군의 모교이기도 하다. "워털루 전투에서 이튼교의 승리는 이튼 교정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한 웰링턴은 자기 모교에 대한 사랑과 긍지가 대단했던 사람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멋진 찬사를 자기 모교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지난해부터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가 다시 시작되었기에 나는 40여년 전의 생도시절을 회상하며 경기장을 찾았다. 그러나 열광하는 생도들의 혼연일체가 된 응원에 비하여 동창들의 참여와 응원이 너무나 썰렁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기가 민망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사관학교 출신자 누구에게 물어봐도 「사관학교라는 모교가 가지는 의미가

자기 출신고교나 웰링턴 장군의 이튼 학교의 그것에 비해 결코 뒤질 수 없다"는 대답을 할 것으로 나는 확신한다. 그럼에도 사관학교 동창회원들 간의 凝聚力이나 母校에 대한 관심이 고등학교 동창회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근래에 와서 空士總同窓會가 크게 활성화되고 있다는 소식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졸업생(현역 포함)들의 관심과 참여가 期待 水準(타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수준)에 못 미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 스스로도 가슴이 뜨끔했다. 사관학교 출신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볼 사안이란 생각이 든다. 특히 豫備役의 경우 母校(사관학교)에 대한 愛情은 동창 상호간의 유대 강화를 위한 에너지가 되고 점점 희미해져 가는 母軍의 사랑은 물론 나아가 나라사랑의 마음을 재確認할 수 있는 밑거름도 될 것이라는 총동창회 임원들의 主張에 전적으로 同感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 (2면에서 이음)

해결이나 의사결정시 스타일은 주로 직책에 대한 권위성, 근무경력, 직관 또는 한정된 전문지식에만 의심되어 의존하여 "바로 이거야", "나만 믿어 틀림없어", "내가 지시하는 대로만 해", "이 분야는 내가 잘 알아요" 등 개인적인 능력과 판단에 따라 흔히 "남자답고 용감하게" 결정해 버리는 사례가 많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과거 산업사회, 즉 저확률, 저충격의 시대에서는 하나의 실패한 의사결정이 개인이나 조직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던 시대라고 본다. 미래사회에서는 그 빈도가 비록 드물게 발생할지라도 그 실수의 결과는 개인이나 사회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와 충격을 주는 저확률, 고충격 시대에 와 있다는 점을 우리는 중시할 필요가 있다.

본인은 수년 전 S그룹 인력개발원에 근무할 당시, 미국 뉴저지주 프린스턴 교의 한적한 숲속에 자리잡고 있는 45년 전통의 의사결정기법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전문 연구기관인 Kepner-Tregoe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한 과학적 문제해결과 의사결정기법에 관한 강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내용 중 Rational

Thinking Process에 관한 기본개념만 일부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의사결정의 공통점을 보면, 우선 문제해결에 관련된 수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정보자료를 철차에 따라 꼼꼼히 수집하거나 착안하지 않은 채 (인력과 경비평계), 또는 그나마 불충분 정보의 가치인식이나 그 분석기법조차도 표준화되어 있지 못한 반면, 성공한 의사결정의 사례를 보면 상황에 맞는 정보수집과 그 평가과정이 단지 의사결정자의 직관이나 결단력 또는 "용감무쌍한 남자다운"적 결정이 아니고, 마치 공산품의 제조과정을 보는 것처럼 표준화되고 정제된 기법을 거쳐 얻어낸 결론인데 Kepner & Tregoe 박사는 이것을 곧 Rational Thinking Process라고 개념을 정의하였다.

즉, 의사결정시 반드시 사실적 자료에만 근거를 두고 가능한 원리(상황분석→문제분석→결정분석→잠재적 문제분석)에 따라 오락가락 공경하는 낭비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판단의 오류나 착각 또는 감상적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밀도 높은 결론을 끌어내는 Process를 마치 제품생산의 과정처럼 체계화 해놓은 기법인 것이다. 이 Rational Thinking

Process의 훈련기법은 상황분석(SA : Situation Appraisal), 문제분석(PA : Problem Analysis), 결정분석(DA : Decision Analysis), 그리고 잠재적 문제분석(PPA : Potential Problem Analysis)의 네 단계 Process로 구성되는데 각 단계별 설명은 지면관계상 생략한다.

과거에는 동양적인 Leadership 특징에 자주 나타나는 배짱, 직감, 결단력, 열감 등 가능하기 어려운 비계량적이고 비논리적인 요소들이 의사결정을 좌우하였다면 이제는 한정된 여건과 빠르게 바뀌는 환경 속에서 의사결정 배경이 매우 복잡해지고 작은 잘못도 허용되지 않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극대화된 System Power를 창출하려면, Rational Thinking Process와 같은 철저하고 합리적인 사고습관을 몸에 익혀 단번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최대한의 공익을 위한 생산성과 경쟁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유능한 지휘관이나 조직의 경영자라면 수시로 직면하게 되는 다양한 상황의 내용이 비록 낯설고 그 분야의 전문지식에 다소 생소해 있지 못더라도 문제인식의 접근방법이나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적 기법이나 절차를 숙지한 사고의 틀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돌발사태에서도 당황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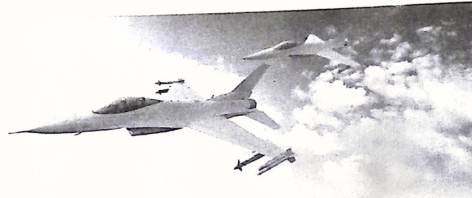
않고 One Point로 적중할 수 있는 정밀도 높은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직의 System Power는 곧 총화력인데 개인이 갖고 있는 전문지식이나 정보의 양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지식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의 수준을 넘어 이제는 시스템적 사고분석으로 판단력을 강화함으로써 합리적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K-T 기법을 개발한 Charles C. Kepner와 Benjamin B. Tregoe 박사는 원래 미국 최대의 Think Tank인 LAND Corporation에 소속하여 조직이 행하는 의사결정의 효율화에 대해 연구해 오다가 정부의 여러 기관과 평문기업들이 자주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에 흥미를 갖고 그 원인과 사례를 모아 분석하다가 본 Tool을 개발하게 된 것이다.

본 프로그램은 현재 중국과 일본을 비롯하여 세계 30여 개국의 기업과 정부기관에 소개되어 이들 조직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기본 훈련기법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참고적으로 부언하면서 글을 맺는다.

# 보라매 시절과 과학기술자의 길



徐廷旭  
(前) 空士 教授  
과학기술부장관

공군 생활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내가 공군에 근무하던 시절은 우리가 개발한 장비와 외국에서 개발한 장비를 군원으로 받아 운영하는 군이었다. 한 나라의 국방 체계에 우리의 것을 거의 볼 수 없었던 생환체험은 기술자로서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들었다.

내가 사관학교 교관으로 재직하던 시절은 되돌아보면 당시 사관학교는 어느 대학보다 학습환경이 좋았다. 생도교육을 위해 강단에 서기 전에 나는 미국 공군의 항공교관과정(AIC)을 수료했는데, 사법대학을 나온 동기생들이 놀랄 정도로 훌륭했다. 생도교육도 미국의 교재를 채택하여 일반 대학보다 내용이 충실했고, 실업도 철저했다. 특히 이론과 실제를 겸한 미 공군의 기술교육 자료는 미국의 대학 교재에서 정선한 것으로서 나의 미국 유학 과정에 큰 도움이 됐다. 당시의 교관들은 병역을 마치면 대부분 유학의 길을 택했다. 이러한 교육환경이 생도교육뿐만 아니라 젊은 교관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런 점에서 공군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싶다.

공군의 선배님들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이바지한 바는, 첫째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켰다는 것이다. 현대전은 과학기술전이라는 것을 우리는 6.25를 겪으면서 기술이 왜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왜 과학기술에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를 직접 인식하게 할 수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첨단기술을 다루는 군으로서 우리나라 기술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비록 외국에서 도입된 장비이기도 하지만 첨단장비를 다루어 본 경험은 국내산업 성장기에 기술인력 공급의 원천이 되었다. 셋째, 공군의 선배님들은 이미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과학기술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과연 공군에 입대하지 않았다면 어느 곳에서 미국의 선진기술을 접하고 선진기술을 배워

야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기회조차 없었을지 모른다.

나의 공군 생활은 '미국의 고등교육과 군사 과학기술'과의 만남이 되었다. 물론 선배들이 들려주던 포부가 영향을 주기도 했지만, 우선 오늘날 하는 일에 자신을 갖도록 남보다 단단한 기초를 닦아야 한다는 나의 신조 탓이기도 했다.

그 무렵 공대 졸업 후의 진로는 대학원 아니면, 한집이나 상공부, 공보처나 방송국, 체신부나 전화국 같은 곳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위 환경은 나에게 매력을 주지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면 통신기기 개발이나 제조 같은 것이었다. 당시 우리 기업의 수준은 일본 등 외국에서 면허를 들여와 전선, 선종기, 라디오 등을 생산할 조립공장을 건설하고 있는 정도의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했다.

나는 그때 내가 알고 있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다.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공군에 복무하면서 아마추어로서, 또 프로페셔널로서 체험한 군의 통신전자 장비, 교육훈련, 보급, 정비, 물자 관리 등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자임을 할 수 있는가를 하는 것이었다. 그 때 나를 사로잡은 생각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만으로는 고도의 연구 개발, 시험 평가, 품질 보증을 맡고 싶었고, 남들이 개발하고 생산한 장비나 운용하는 이른바 '블랙박스 오퍼레이터(Black Box Operator)' 밖에 될 수 없다는 깨달음이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를 동시에 푸는 방법으로 나는 미국 유학을 선택하게 되었다.

그 당시 결정적으로 미국 유학의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은 공군사관학교의 신상철 교장님이다. 내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안 신상철 교장님은 나를 고문관으로 있던 램서 중령에게 소개해 주셨다. 램서 중령은 내게 미국 대학의 교육 시스템을 소개해 주고,

미국에 가면 나의 적성에 맞는 커리큘럼을 짤 수 있다고 일러주었다. 그리고 군인의 신분이면서 민간 대학에 가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미 공군 공과대학(USAFIT)의 민간 대학프로그램(CIP)에 응시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 권유에 따라 통신전자 전문가와 교육 특기 장교로 여러 사람이 응시하였는데, 나 혼자만 USAFIT에서 합격 통지를 받고 Texas A&M 전기공학과로 가게 되었다(미국은 통신이나 전기나 구별을 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회는 그전까지의 관례로는 사관학교를 나온 사람에게나 주어지는 특전이었다. 그 당시 신상철 교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있었지만 나로서는 공군에 장기 복무를 약속해야 하는 중대한 결심을 함께 해야 했다.

나는 미국에 가서 학부 과정을 다시 밟았다. 전공을 바꾼 탓도 있었지만, 미국에 가서 보니 학부를 거치지 않은 미국의 고등 학위는 사상누각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학부 과정을 밟으면서 미국대학 교육의 진수(眞髓)를 맛볼 수 있었으며, 보다 많은 교수들을 알게 되었다. 기숙사 생활을 통해 미국 학생들과 격의 없이 교류하고, 취미생활로 아마추어 무선 애호가들이 즐기는 각종 송수신기 키트인 히트키트(Heathkit) 조립과 레코드 수집에도 열을 올렸다. 나는 평범한 주립 대학에 다니면서 그들이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고등교육의 이념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또 젊은이들에게 신사도와 애국심을 가르치는 ROTC를 보고 감명을 받았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을 제치고 미국이 노벨상을 휩쓸게 된 데에는 흔히들 유럽의 과학기술자들이 전쟁을 피해 대거 이민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사실은 남북 전쟁이 끝난 직후 모릴법(Morrill Act)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이 각주에 국유지 교부대학(Land-grant College System)을 설립한 백년대기의 교육 정책 때문이며, 학부를 마치면 다른 대학으로 진학하는 전통을 만들어 대학간의 교류가 활발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등교육 제도에서 100년만에 전 세계를 압도하는 과학기술 패권 국가가 된 요체를 쉽게 읽을 수 있었다.

미국 유학기간 동안 큰 가르침을 주신 훌륭한 교수님이 여러분 계시지만, 특히 학위지도 교수를 맡아 주신 저먼(John P. German) 선생님은 나에게 학자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 기술자가 지켜야 할 신조와 집념을 가르쳐 주셨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극비에 속하는 레이더 교육을 MIT에서 받고 버마 전선에 참전하기도 했던 저먼 선생님은 통신기, 레이더 등 전자병기를 공중 투하로 받고 보니 거의 파손되어 전쟁에 쓰이지 못하고 고생만 한 그때의 체험을 말씀하면서 포장 기술도 연구해야 되는 군장비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역설하시는 등 여러 가지 산 교훈을 나에게 주셨다.

떠날 때 약속한 유학 기한이 끝날 무렵 미 공군과 Texas A&M에서 모두 박사과정을 위한 장학금을 받고 고민했으나 일단 귀국하기로 결심했다. 귀국해서는 미국에서 막 시작된 연구과제로서 인공위성에서 발사된 전파를 이용하여 전리층의 전자 밀도를 측정하는 연구에 우리 공군이 참여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져 공군사관학교에 전리층 관측 연구소를 설치하고, HMI BX라는 호출 부호로 아마추어 무선국을 개국하였다. 결혼 후 나는 다시 저먼 교수님의 부름으로 아내와 어린 딸과 함께 Texas A&M으로 돌아가 계획했던 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1960년대 초의 한국은 산업 국가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그만큼 장래가 불투명했던 그런 시절이었다. 이런 현실과 이상의 사이에서 갈등하면서 미국 유학을 하는 동안 나는 몇 가지 신념을 굳히게 되었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통신전자 산업에 품질과 신기술을 충실하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앞장서는 기술자가 되겠다는 것이었고, 둘째는 평범한 사람들을 데리고 비범한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술자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셋째는 이 시

대의 사회적 담명을 이행하기 위해서 담장의 평가를 보다는 먼 훗날의 평가를 받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신념은 귀국 후 국방과학연구소 창설에 참여하면서 나를 대로의 소신을 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와 같이 나를 비롯하여 당시 국내외의 우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입대한 젊은 기술자들에게 사관학교 교관이라는 문호를 개방한 것은 젊은 과학기술자에게 공군이 부여한 큰 혜택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연구와 강의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교장님 이하 선배장교분들의 따뜻한 배려가 얼마나 내인생에서 큰 역할을 했는지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지금도 그 당시 교관이었던 분들과 가끔 만나면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그 분들에게를 나누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끼여들기 위해서는 오직 과학기술을 중요시 하고 열심히 연구하여 선진 과학기술국이 되는 길밖에 없다.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여 과학기술부에서는 정보기술, 생명공학, 환경, 에너지, 신소재 등과 항공우주기술을 미래의 유망기술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하고자 한다. 공군은 새로운 미래기술의 최종 소비자로서 과학기술에 대한 마인드가 어느 군보다도 앞서 있어야 한다. 걸프전이나 지난 해에 있었던 NATO군의 유고 공습에서 보았듯이 현대전에서는 공군력의 우세가 승패를 결정하고 있다. 공군력은 항공기의 성능과 대수도 중요하겠지만 전자·통신·레이더 및 유도무기 등 첨단 기술경쟁에 앞장지 않으면 안된다. 이와 같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공군은 미래기술의 선도자로서 과학기술의 개발에 좀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아끼지 말기를 간절히 바란다.

會員寄稿

21世紀에 거는 希望과 期待



全春雨(67)

- 現 大韓地籍公社 社長
- (豫) 空軍少將
- 前 空士校長(26代)
- 前 空士總同窓會 會長(6代)

使命感과 自負心을 느끼며

「우리는 새로운 千年을 맞이하는 출발시점에 들어섰습니다. 2000년을 계기로 國難을 克服하고 새로운 世紀에 대한 希望과, 그리고 期待· 覺悟를 다지며」

본인은 지난해 11월부터 財團法人 大韓地籍公社의 經營의 責任을 맡게 되었습니다. 62년의 역사를 가진 地籍公社를 간단히 紹介하면 職員 4,000여 명 중 測量技術者가 3,000명으로 12個支社(9개도, 3개시), 230個出張所(시·군·구)를 가진 행정자치부 산하의 방대한 組織을 갖춘 機關으로 국가고유업자인 地籍測量을 獨占으로 代行하여 國民財產權을 보호하고 國토의 效率의 이용을 위한 政府土地管理 行政資料를 提供하는 公益機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經營者로서 막중한 任務과 국가 施策에 副應하는 自負心과 矜持를 가지게 됩니다. 地籍測量이란 土地의 境界와 面積을 測量하고 그 結果를 地表面上에 復元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公업단지를 비롯한 道路, 아파트 建設, 농지정리 등 일체의 建設事業 工事に 必須의 地籍測量이 要求되는 것입니다.

大韓地籍公社는 1938.1.24. 財團法人 朝鮮地籍協會로 創設, 1949.5.1. 財團法人 大韓地籍協會로 名稱이 變更되었다가 1977.7.1. 財團法人 大韓地籍公社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主要事業을 살펴보면 地籍測量業務의 代

行 외에도, 토지의 所在·地番·地目·境界 등을 登錄한 도면의 作成 및 再作成, 測量業務에 隨伴되는 境界點 표지 設置·삼각점埋設 등의 附帶業務, 地籍技術者의 教育訓練, 地籍制度·地籍測量技術의 研究開發 등의 役割을 遂行하고 있습니다.

격변하는 주변환경 속에 확고한 自生力 提高와 競爭力을 갖춘 公社로서 政府가 맡겨준 職務를 忠실히 履行하면서 國民이 顧客인 需要者에게 보다 나은 親切奉仕와 서비스를 提供하기 위하여 地籍測量의 새로운 技術開發과 制度改善, 그리고 尖端 技術教育에 力點을 두어 高附加價値를 創出할 수 있는 技術者를 再教育하고 밀레니엄 時代를 대비 우리 公社의 經營效率을 위한 中·長期 發展 計劃을 樹立하여 推進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人工衛星을 이용한 衛星위치결정체계(GPS : Global Positioning System)등 선진국의 最先端 測量技術을 導入하여 精密度 높은 地籍測量을 研究하는 한편 필지 중심의 地籍公簿 作成(PBLIS : Parcel Based Land Information System) 등 전국토의 地籍再調査 사업의 기반 구축에도 全力을 다하고 있습니다.

親切, 迅速, 正確한 地籍測量으로 새천년을 지향하는 公社로 거듭나기 위하여 合理, 創意, 和合을 社訓으로 對民 奉仕에 온갖 精誠을 쏟을 것을 다짐해보며, 個人的으로는 公職의 마지막 奉仕의 機會로 삼아 50년 만에 여,아의 成功의인

政權交替를 이룩한 國民의 政府에 參與하여 국가경영 戰略委員會 安保委員의 一員으로 또한 空軍 一員으로 微力이나마 役割을 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自負心과 責任을 느끼게 됩니다. 國民의 政府는 IMF 철입에 우동생으로 경제의 安定을 이루었고 外交 安保面에서도 卓越한 指導力을 發揮하여 세계에서 讚辭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 햇빛 정책도 굳건한 安保의 바탕 위에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꾸준히 持續의으로 成果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베를린 선언」으로 구라파를 비롯한 세계에서 呼應과 支持를 받고 있습니다. 可觀의인 成果를 할 수 있음은

6·25 南侵의 敎訓

어제 우리 잊을 수가 있으랴! 恥辱의 同族相殘, 民族의 分裂, 廢墟, 餓주립 등 記憶하고 싶지 않은 最惡의 切望, 그리고 混濁. 너무나 많은 犧牲의 代價를 치른 6·25의 敎訓을 되살려 다시는 이 땅에 北傀의 南侵을 許容하지 않도록 後世에 길이 남겨 戰爭 없는 平和를 위한 和解와 協力으로 이어나가 할 것입니다. 北傀軍의 南侵으로 시작된 6·25. 당시 韓國空軍은 L-4, L-5, T-6, F-51 등의 경비행기와 몇 대 안되는 戰術機로 敵의 南下를 阻止하기 위한 地上軍 支援作戰에 精誠과 愛國精神으로 先頭縱隊士들은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우며 手裏 폭탄을 投下, 敵의 TANK를 앞세운 南侵을 阻

止하던 殺身保國의 犧牲精神에 感激가 속입니다. F-51 전폭기가 墜入된 이후 1950.7.3. 첫 出擊을 시작으로 韓國空軍은 UN空軍과 聯合作戰으로 連일 낙동강 防禦線을 비롯한 敵 후방을 攻撃하는 등 休戰時까지 총 8,495회의 出擊을 敢行하였는데 이 기간 중 F-51 전 투조종사 39명이 100회 出擊을 기록한 반면 17명의 F-51 조종사가 적지 上空에서 壯烈히 散華한 殉國의 高貴한 犧牲은 우리 후배들의 脈搏에 鼓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막강 空軍으로 靑島와 F-16 최신에 戰術機로 武裝한 空軍으로 발돋움한 것은 先驅者의인 指揮官들과 忠情 어린 선배님들의 불타는 情熱이 없었다면 오늘의 空軍은 없었을 것입니다. 현대전에 있어서 空軍은 戰爭의 勝敗에 決定的인 核心戰力으로 선배님들이 刻苦의 努力으로 50년 동안 이룩한 (6면에 계속)

會 員 動 靜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

기수	성명	주소	전화번호
1	이희근	서산시 용산구 이촌동 300-64 참이매션 12층 C호	798-4942
1	심찬선	광명시 교동 1773 부영A. 301-806	0391-643-3730
2	이원갑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151 동남A. 101-503	0331-298-4426
3	김태석	서산시 감서구 들운동 655-27 한대A. 101-1106	3664-4604
4	양신서	서산시 관악구 방천6동 1706 우성A. 101-1506	873-2910
5	전원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17 이매촌 동신A. 306-602	0342-795-0740
5	양원희	서산시 갈매구 개포동 12 대치A. 211-1006	459-6356
5	박승식	대전시 유성구 전민동 464-1 엑스포A. 501-904	?
5	한동란	서산시 중구 신당4동 842 약수하이츠A. 103-1902	2254-3721
7	김국강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48 변방미웃길 901-905	0344-336-2220
8	김동원	안산시 사2동 1345 요진A. 208-102	0345-418-2105
8	서진태	강원도 인주시 문막읍 비무1리 구포동 231	0371-731-5758
10	이은환	서산시 무로구 신도림동 643 신도림 동아1차. 105-404	2637-5653
14	정재승	서산시 양천구 신명7동 337 목동2차 오성A. 212-502	651-7293
15	안익중	서산시 임흥포구 담산동5가 효성A. 101-304	677-4722
15	김우식	인천시 서구 남포동 179 동부A. 107-1001	032-273-2224

화 혼

김상호(5기) : 3남 김경훈 군 '99. 12. 4. 갈리고 신학대학 원치기념관에서  
이현규(5기) : 3남 이재구 군 '99. 12. 26. 대전 둔산웨딩타운에서  
김성일(5기) : 장남 김석균 군 2000. 3. 4. 14:30 향군회관에서  
곽갑순(13기) : 장남 2000. 1. 23. 1:00 향군회관에서

축하합니다

자녀 결혼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축하 전보 및 회보에 게재하여 다같이 축하하겠습니다.  
동기생의 주소로 청첩장 우송을 대행해 드립니다.  
총동창회의 축하 것발을 빌려드립니다.

인사 및 직장 동정

- 1期 - 尹子重 : 보라매회 회장에 취임  
本會 尹子重 同門(1기, 제14대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예))은 지난 3월 30일 공군회관에서 개최한 보라매회 정기총회에서 보라매회 제17대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신임 尹회장은 앞으로 2년 간의 임기 동안 보라매회의 발전과 모국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1期 - 丁海瑛 : 한국예비역 기독교교회 연합회 회장에 피선 취임.  
본회 丁海瑛 회원(1기)은 지난 2월 22일 한국예비역 기독교교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丁會員은 이 외에도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 한국 어린이 보호재단 고양시 후원회장, 바울학회 공동 회장 등 많은 사회사업과 종교활동 및 저술활동을 통하여 어린이 보호와 종교를 통한 사회 정화 및 정신 구렁사업에 헌신하고 있어 동문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 1期 - 安昌一 : 사회복지법인 DANIEL 복지원 의무실 근무(월수금) (事) 02-445-4892/4 (自) 02-446-3205
- 2期 - 李元甲 : 한국항공기술협회 회장 취임
- 3期 - 李鍾學 : (서라벌군사연구소장)  
이종학(3기) 同門은 日本 防衛廳 防衛研究所 戰史部 초청으로 다음과 같은 論文 發表會를 가졌다.  
이들 논문에 대하여 日本의 관계 학자들은 지대한 관심과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 1월 25일 「日本の 西洋 軍事理論 受容에 관하여」  
· 1월 26일 「太平洋 戰爭 史觀」  
· 1월 27일 「朝鮮 戰爭 史觀」  
· 1월 28일 「朝鮮 戰爭 및 太平洋 戰爭의 歷史觀에 대해」

부 음

- 배보환 (2기) : 2000년 2월 13일 숙환으로 별세
- 조상진 (5기) : 1999년 11월 16일 고령압(뇌졸중)으로 별세
- 정우태 (8기) : 2000년 3월 9일 11:00 보라매병원에서 별세
- 허중천 (8기) : 2000년 3월 1일 대전에서 별세
- 박득규(15기) : 1999년 12월 영국 스탠테드(Stanted)공관에서 순직

■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 空士總同窓會에 바라는 마음

청소년은 희망으로 살고 청장년은 패기로 산다고 하였으며, 노년에는 안경과 추억을 먹고산다고 한다. 문득 지난해 40년을 되돌아보고 싶을 때가 있으니 추억을 먹고사는 나이가 되어나보라.

士官學校 生活를 비롯하여 비행학교 時節, 계급장을 어깨에 달고 空軍部隊를 떠돌던 지난 30여년의 세월들이 꿈만 같이 느껴진다. 이제 豫備役이 된 지 10년이 지났으며, 社會에서 職場生活도 마감하였으니 무척 한가로우나 마음속은 무엇인가 텅빈 느낌이다. 그래서인지 과거에는 잘 다니지도 않던 고향도 가끔 찾게 되고 여기저기 同窓會도 기웃거리 보곤 한다. 지금의 나의 모양새가 역마살이 잔뜩 있는 풍뎉이 남편이 좋은 세월 다 보내고 살인의 한계를 느끼자 조감지처를 찾는 꼴인지도 모르겠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各種 親睦會나 同窓會가 있게 마련이지만 가장 가까이 느껴져야 할 空士同窓會가 멀리만 느껴지는 것은 무슨 곡절일까? 이것이 나 혼자만의 골짜님 생각이기를 바라면서 누우쳐 보기도 한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면 분명히 그 이유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士官學校 教育 또는 軍의 階級 社會의 特殊性 때문이라면 어떤 면에서는 조국에 대한 회상이 필요시 냉정성을 견지해야 하는 목적에 부합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권위와 자만 그리고 불의와 우기가 없는 곳, 또는上官만 있고部下가 없는 곳이라고 표현한다면 너무 경직된 표현이 아닌가 싶다. 물론 동기와 선·후배간의 아름다운 미담도 많고 따뜻한 교류도, 어두운 사회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몇몇 이야기도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볼 일들은 스스로가 존경받는 선배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일인 급선무일 것이다. 나도 이제 많은 後輩를 두고 있는 위치에서 참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며 후학을 부리고 있을 뿐이다.

本人은 전역 후 대구에서 생활하면서 경북·대구지역의 보라매회 지회를 만들어 그동안 이 지역에 보라매들의 친목단체로 성장·발전시켜 왔다. 특히 대구 K-2기지는 우리 공군의 중요 기지 중의 하나이며 많은 선·후배 전우가 근무하고 거처간 주요 요람의 하나다. 또한 기지 규모의 웅대함과 많은 상근 인원수로 인하여 대구 인근에 삼의 동지를 들고 제2모함으로 정착한 전우가 많은 것도 친목삼중의 하나다. 이러한 연유로 이 지역 예비역들은 상호간의 친목단체 戰友會가 많은 것도 사실이며, 이로 인하여 예비역 친목단체 활동이 생동감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친목단체 활성화의 기본은 참여와 관심 이 관건이다. 새우 만나고 서로 도와가면 以心傳心으로 화합과 단결이 이뤄진다고 생각한다.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화합 단결로 지난 3월 30일 보라매회 정기총회에서 모범 우수 지회로 상을 받고 보니 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

空士總同窓會도 근년에 와서 대동과 기반 구축의 어려움을 딛고 성장·발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 든든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아직도 관심과 참여율이 기대 이하인 것이 사실이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란 것은 어느 학교(초중, 중등, 고등, 대학)동창회보다 인연과 뜻이 있는 동창회라고 생각한다. 어느 동창생이 4년이란 긴 세월을 한술밥을 먹고, 잠자리를 같이 하고, 교육과 훈련을 같이 받으면서 喜怒哀樂을 같이 하는 학교가 있는가?

다른 학교가 배움을 같이 하는 장이라면 공군사관학교는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자기 인생 전체를 담보하는 교육 기관이며, 목숨까지도 바쳐야 하는 사생관을 구축하는 교육 기관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生死苦樂을 같이 하는 戰友라고 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훌륭한 동창회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 또한, 총동창회 집행부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동창회를 위하여 노력해 주길 부탁하고 우리 동창회는 회원들의 마음의 고향이 되어 주길 바란다.



권태정(11기)

대구 경북 보라매회 회장

### 棋士의 圍棋十訣

우리 동료 중에는 유난히 바둑을 즐기며 여가를 선용하는 親友가 많다. 그래서 바둑에 대한 고견 하나를 소개할까 한다. 百濟 21代 蓋虞王(개로왕)은 동생과 바둑을 같이 두면서 꼭 명심해야 할 열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었는데 이것이 곧 "위기십결(圍棋十訣)"이다.

이는 人生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도, 將帥가 兵士를 이끌고 전쟁터에 출정할 때에도, 팔히 지켜야 할 열 가지 方法으로써

첫째, 탐욕불승(貪慾不勝); 지나친 욕심은 화를 불러일으키며 결국 이기 이해에서 지게 된다는 뜻이며, 둘째, 입계의완(入界宜緩); 적의 세력 내에 들어갈 때에는 자신의 기세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뜻으로 적이 강한 곳에서는 싸우지 말고 일단 화평을 취하여 적의 세력이 약해질 때를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방법이다. 셋째, 공피고아(攻彼顧我); 적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의 결함을 먼저 돌아보라는 뜻이며, 네번째, 기자쟁선(棄子爭先); 이는 쓸모없는 패석은 과감히 버리고 먼저 선수를 잡으려 하라는 뜻이다. 다섯번째, 사소취대(捨小取大); 작은 이익은 과감히 버리고 큰 이익을 취하려는 뜻으로 바둑판에 머리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적은 부분에 치우치게 되는 법이다. 부분 전투에서 이길 수 있지만 이는 곧 小食大失이다. 여섯번째, 봉위수기(逢危爲棄); 달아나도 소용없는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는 과감히 이를 버려야 한다는 뜻으로 쓸데없이 미련을 갖거나 애정을 보임으로써 실기하게 되면 전체의 대사를 그르치게 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일곱번째, 신물경속(慎勿輕速); 경솔하여 움직이지 말라는 뜻으로 모든 움직임에는 때가 있는바, 때를 보아 기다릴 줄 아는 것이 必勝의 戰法이다. 여덟번째, 동수상응(動靜相應); 이는 적의 급하고 느린 형세를 정갈히 판단하여 응수하려는 뜻이며, 필요하지도 급하지도 않은 곳을 공격한다면 이는 적을 오히려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를 불급지찰(不急之察)이라고도 하는데 반드시 공격할 때는 적의 급소를 찾아 노려야 한다. 아홉번째, 피강자보(彼強自保); 적이 강한 곳에서는 오직 공격하려 하지 말고 자신의 방위에 萬全을 기하라는 뜻이다. 적이 강한 곳에서는 절대 싸움을 해서는 안된다는 眞理인 것이다. 열번째, 세고취화(勢孤取和); 이는 고립된 형세 속에서는 화평책을 도모하라는 뜻으로 모든 세력이 고립되어 포위가 되어있는 데도 화평책을 쓰지 않고 싸우려 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내리치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것이다.

여러분들은 이 十訣을 잘 고찰하여 보고 棋聖의 道를 닦는데 큰 도움과 향상 勝利를 만끽해 보는 것이 人生行路에 큰 活力素가 되고 精神健康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바둑은 三國時代부터 鬪魂의 유희로 大王뿐 아니라 高官大爵 및 百姓들까지 가장 즐기며 崇尚하는 棋道로서 사랑을 받고 있다.

관자와 白石의 교묘한 勝負이 生死를 左右하고 들 한 점으로 大勢를 판가름하는 오묘한 조화가 또 어디에 있을까?



홍인규(7기)

칠성회 총무

과 하늘에 바친다는 空士校의 教育目標을 마음속에 되새기며 指導·育成해준 空軍과 母校에 항상 感謝하며 空軍士官學校의 無窮한 發展을 위하여 높이 떠서 멀리 보는 嚮導로 空士 發展에 더 많은 寄與가 있어야겠습니다.

#### 맺는 글

아무리 理想的이고 世界의 支持를 받고 있는 對北政策인 햇빛政策이나 '베를린 선언'도 튼튼한 安保와 完備한 國防力의 바탕하에서만이 成功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北韓을 研究하는 教授·專門家들은 우리들은 自由와 民主體制 속에서 思考하고 想像하여 人道主義와 人權을 主張하지만 北韓은 共產主義의 宗主國인 소련이 滅亡되었는데도 21世紀에 稀貴한 專制君主 世襲王國體制에 19世紀의 獨裁國家의 兵營體制에 있는 舊體制 獨裁兵營暴力國家가 아닌 暴力集團이라는 것을 絶對로 잊어서는 안되며 對話나 協約約束은 一方의 獨斷으로 언제라도 破壞하고 當然하다는 式的 體制이며, 勞動1號와 1,000km 以上の 海 誘導彈의 生産을 協商의 카드로 利用하고 있으며, 平和와 人道主義를 主張하는 自由民主大韓에도 北傀에 同調 또는 支持, 언제라도 爆發할 수 있는 地下組織이 常存하고

있다는 것은 平和와 統一에 最惡의 障礙 要素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되었습니다.

새천년에는 知識과 情報, 그리고 文化가 國力을 決定하는 轉換期에 놓여 있으며, 知識과 情報, 文化를 輸出할 수 있는 創意性을 갖춘 頭腦와 年齡破壤, 學歷·學籍破壤가 急速의 擲散되어 合理的으로 思考하고 能力이 얼마나 갖추고 있으며, 附加價値가 있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輸出해 내느냐가 關鍵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組織의 사람이 中心이 되는 人本原則이 기 때문에 和解와 協助로 團結하고 融合하여야만 國家도, 社會도, 組織도 그리고 莫強한 宇宙空軍力도 建設될 것입니다.

21世紀는 創意的인 思考와 能力을 갖춘 인간이 知識情報時代에 걸맞는 未來指向的인 韓國人象을 具現해 내기 위해서 世界史의 中心에서 날을 大望의 눈으로 바라보며, 다가오는 航空宇宙의 時代에 最尖端 情報技術化와 體系의 이고 科學的인 訓練으로 武裝한 最精銳 宇宙空軍의 核心要素인 星武人이 되어 앞으로 展開될 航空宇宙時代를 맞이하여 빛나는 主役으로서 그 價値가 더욱 높아지기를 期待해 마지 않습니다.

#### (5면에서 이음)

것을 오늘의 밀레니엄 時代에는 7년 내지 10년으로 短縮시킬 수도 있는 사이버 時代에 컴퓨터 활용 능력을 배양하고 60억 세계 인구 속에서 英語를 사용하는 時代에 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첨단 과학의 선진화와 더불어 영여 구사 능력을 향상해야겠습니다. 앞으로 21세기 未來의 空軍은 情報戰爭, 宇宙戰爭, 미사일戰爭, 로켓戰爭, 4次元戰爭 등의 未來戰에 필요한 未來指向的인 空軍力 建設로 國家發展은 물론 未來戰에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空軍은 새천년의 安保環境과 現存하는 北傀의 軍事力 威脅뿐만 아니라 統一以後 周邊國의 假想敵 對行爲가 豫想되는 戰域에 對備하

여 徵候探知를 爲한 早期警報體制와 情報蒐集 分析, 情報活用化와 作戰統制體制 등을 갖추어서 宇宙航空作戰 隨行能力을 構築하는 데 더 많은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7,000여 명의 空士 總同窓會員(星武人)들은 北傀의 6·25 兩殘 50周年을 맞아 無防備했던, 그리고 劣惡한 空軍力으로 支離滅裂했던 慘痛한과 恥辱스러운 歷史에 對하여 卍아픈 6·25를 敎訓 삼아 새로운 覺悟로 世界와 宇宙로 飛翔하는 空軍이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한마음을 합물이 되어 團結하고 率先垂範하는 (星武會) 同窓會員이 되어 後輩들의 血鑑이 되기를 감히 바랍니다.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祖國

# 空士總同窓會 消息

## 공군참모총장 本會 禮訪

박춘택 공군참모총장은 이임을 앞두고 지난 2월 2일 본회를 방문, 한주석 공사총동창회 회장 및 회장단과 환담을 나누었다. 박총장은 공사총동창회의 협조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본회 발전에 심혈을 기울이는 본회 會長團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주석 회장은 박총장의 공군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본회 발전을 위하여 다방면의 협조와 지원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본회 배지를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 신임 공군참모총장 本會 禮訪

신임 공군참모총장 이영수 대장은 지난 3월 14일 신임 인사차 본회를 방문, 한주석 회장 및 회장단과 환담을 나누었다. 이 자리에서 신임 참모총장은 공군발전을 위하여 공사총동창회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하였으며, 본회 한주석 회장은 신임 참모총장이 공군발전에 심혈을 기울이고, 완벽한 영공방위로 전국민이 공군을 믿고,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격려했다. 또한 공사총동창회의 발전에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하고 방문 기념 배지를 증정하였다.



## 공사총동창회 회장상 시상

지난 3월 17일 공군사관학교 제48기 졸업 및 임관식에 본회 會長團 및 多數 同門들이 참석하여 후배 동문들의 졸업과 임관을 축하하고, 2부 행사에서 우방국 시상과 함께 본회 한주석 회장은 총동창회 회장상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하고 앞으로 공군의 훌륭한 장교로서 "공군의 발전과 총동창회 회원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同門이 되어줄 것"을 당부하였다. 수상자 이순재 소위는 항공공학을 전공한 조종 특기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동기생 회장 및 전대장 생도를 역임하였으며, 文武를 겸한 지휘 관리능력이 탁월한 장교로서 장래가 매우 촉망된다.

## 本會 會長團 母校 訪問

지난 1월 11일 본회 會長團은 母校를 방문하여 공사 48기 졸업식 및 총동창회장상 시상에 관한 세부절차 및 방법을 논의·결정하였다. 또한, 본회 現況과 발전 방향을 설명하고 앞으로 졸업 및 任有하는 新任 同門들의 회비 납부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였으며, 母校側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본회의 발전에 최대한 협조·지원하기로 하였다.

## 本會 顧問團(전임 회장) 초청 신년 교례회

空士總同窓會는 지난 1월 14일 공군회관에서 본회 고문단을 초청하여 본회 발전 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신년 새해 인사를 나누었다. 이 자리는 고문단(역대 회장)과 본회 會長團이 참석하였으며 대한지적공사 사장으로 부임한 6대 회장 전춘우 社長께서 비움부담을 하고 선물까지 증정하였다.

## 期別消息

1기

1. 기생회(회장 김영환)는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38명의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고 우의를 다지면서 매달 한 번씩 모여 즐거운 노후와 모범적인 동기회 활동을 하고 있다.
2. 총동창회에 대한 관심도 지극히 높아서 노후 생활의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납 회비를 일단 동기생 기금으로 완납하여 (100% 납부) 총동창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도 역할함으로써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3. 또한 지난 1월 모임을 갖고 2000년도 기생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토의하고 사업 계획도 확정하였다.

2기

1. 이공회(회장 명의창)는 그 산하에 E-MAIL 클럽(AFA2 E-MAIL CLUB)을 결성하여 국내의 회원이 다수 加入, 메일 交信을 하고 있으며, 기생 회보는 물론 긴급 사항도 국내외 회원에게 즉각 연락되어 동기생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E-MAIL CLUB 會長(이영수 2기)께서는 2기생뿐만 아니라 선우배간의 종적 통신은 물론 총동창회와의 의사소통 원활을 위하여 E-MAIL CLUB을 많이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상부상조할 사항을 알려주시면 성심껏 봉사하겠다고 하니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이용을 권한다.

- 李榮壽 leeys@chollian.net (Email Club 會長)
- 高水植 yeongkoh@chollian.net
- 高熙奎 hkkoh98@yahoo.com
- 郭淇信 keyshien@aol.com
- 金祥稷 redscarf@hananet.net
- 金相台 advtecco@defensesale.com
- 文國珍 kuk moon@yahoo.com
- 朴鍾伯 bhak@kornet.net
- 宋光憲 khsong@kaynet.com
- 沈載龍 crsim@netsgo.com
- 劉成龍 osyoo@shinbiro.com
- 劉錫浩 shyoo@bkc.co.kr
- 劉翁燮 osyoo@shinbiro.com
- 李元甲 leewonk@shinbiro.com
- 李鍾善 jslee999@chollian.net
- 李鍾弼 cleel028@aol.com
- 全興雨 hjuhn@aol.com
- 崔英善 youdang@netsgo.com
- 洪斗杓 dphong@access.com
- 공사총동창회 airfa@netsgo.com

5기

1. 新星會(회장 전운수)는 지난 2월 10일 공군회관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99 회무 및 결산보고와 2000년 활동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확정하였으며, 空軍士官學校 달력을 구입하여 참석자들에게 배포하였다.
2. 특히, 空士總同窓會에 對한 관심도 至大하여 동기생들에게 총동창회 平生會費 納付를 독려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7기

1. 七星會(회장 김준수)는 2000년 전반기 각종 행사 계획을 확정하였다. 특히, 건강 관리를 위한 Golf 모임을 매월 실시하기로 하고 3월 23일 신촌리에서 모임을 가졌으며, 등산 모임은 매월 셋째 화요일에 관악산 등반(서울대 入口 출발)을 확정하고 3월 21일(火) 금년도 첫 등반 행사를 가졌다.

8기

1. 팔진회(회장 김덕영)는 지난 3월 14일 회원들에게 회원 소식 및 기금 운영에 관한 소식지를 전하고 회원 중 부병 중인 회원에 대한 간병비를 모금하여 간병과 회식에 정성을 쏟았으나 허종천, 정우태 두 동기를 하늘 나라로 보내고, 건강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며, 여타 동기생들의 건강한 삶을 당부하였다.

15기

1. 성익회(회장 최성열)는 지난 1월 26일 회원들에게 신년 인사와 동기생 소식지를 전하고 회원 중 1999년 12월 영국 스탠테드(Stanted) 공항에서 순직한 박득규 동기의 명복을 빌며, 조문 기간 중 적극적인 참여와 보내준 성원에 감사했다. 또한, 37년 간의 군 복무를 명예롭게 끝내고 전역한 김주식, 최용환 동기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같이 하길 기원하였다.

# 母軍·母校 短信

## ●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 거행

공군참모총장 이·취임식이 지난 3월 3일 오전 조성태 국방부장관을 비롯해 합참의장, 육·해군 참모총장 및 내 고위장성, 역대 공군참모총장, 내외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대 대연장에서 거행되었으며, 이역수 대장이 26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였다. 이날 행사를 빛내기 위해 공군의 주력기인 KF-16, F-4, F-5 전투기 편대의 공중 분열이 펼쳐졌다. 신임 이역수 참모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늘날 공군은 새로운 세기의 新국체질서 속에서 국가 안보와 발전을 항구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의 주적인 북괴의 위협에 대비하고 점증하는 주변국의 불특정 위협에 동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야 하는 지상 과제를 부여받고 있다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도전 정신으로 변화를 예측하고 선도할 수 있는 선진 공군! 조국의 번영과 통일을 뒷받침하는 강한 공군!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자랑스러운 공군!을 가꾸어 나가기 위하여 우리의 영원한 일터요, 싸움터인 하늘로! 우주로! 힘차게 날아오르자고 말했다.



## ● '99 공군 최우수 조종사 탄생

'99년도 공군 최우수 조종사(일명 Best Pilot)에 제19전투비행단 권순민 소령(공사 34기, 주기종 F-16)이 최우수 조종사로 선발되어 새천년 하늘의 최강자로 탄생했다. 공군 최우수 조종사는 일선 조종사 전원을 대상으로 한 해 동안의 비행경력, 비행시간, 적기 격추능력, 주·야간 폭격기량, 특수작전 참가 횟수, 비행안전 기여도는 물론 전문지식 수준, 체력평가, 군인으로서의 정신자세, 국방기여도 등 총 10개 분야 24개 세부 항목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공군 조종사에게는 최고의 영예이다. 권소령은 이를 평가 분야 총점 1,000점 만점에 703점을 득점. 영예의 '99 공군 최우수 조종사

로 선발되었다. 권소령은 투철한 사명감과 3,000여 시간의 풍부한 비행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조종사 양성과 필승의 전술전기 연마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전투비행 시뮬레이션을 적극 활용하는 등 비행연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한다. 수상 소식을 전해들은 권소령은 "오늘의 영광이 있도록 지도해주신 선배님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고 따라준 후배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면서 "전투조종사라는 자랑스럽고 명예스러운 직업을 사랑하며, 주어진 임무 완수를 통해 최고의 전투조종사가 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 ● 空士 第48期 卒業 및 任官式 거행

### 情報化 先導하는 航空宇宙軍 建設 당부

지난 3월 17일(금) 午後 2時 星武廳에서 金大中 대통령 内外 분과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유엔 군사령관, 3군 참모총장, 학부모, 내외 귀빈 및 총동창회 회장과 많은 동창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空士 48期 졸업 및 임관식이 성대히 거행되었다. 하늘에서는 48기 졸업생의 임관을 축하하기 위해 공군의 주력기들의 공중 분열이 펼쳐졌다. 이날 대령은 훈시를 통해 "공군 여러분은 우리 군이 21세기 정보화, 과학화된 선진 정보화 군으로 거듭나는데 앞장서는 정보화 군의 전사가 되어 한다고 강조하고 우리 공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전투기량과 첨단무기체계를 바탕으로 세계 일류의 항공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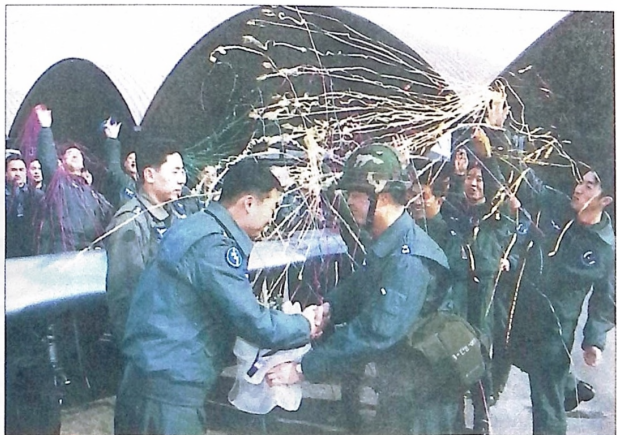
주군 건설을 당부했다." 졸업식에 이어 열린 2부 행사에서는 우방국 공군의 시상과 공사총동창회장의 시상에서 이어 가족 친지들과 함께 하는 계급장 수여와 在校生와 卒業生들 간에 석별의 정을 나누는 졸업반지 증정식이 거행되었다. 在後輩들은 星武廳을 떠나는 先輩들의 卒業을 祝賀하고 卒業生들은 후배들에게 정에서 관생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미래 조국의 하늘을 책임질 멋진 후배가 될 것을 당부하는 훈포장 시간을 가졌다. 이날 영예의 대통령상은 박준영 소위가 수상하였으며, 공사총동창회장은 이순재 소위가 영광을 차지하였다.



## ● 215비행교육대대 9만시간 무사고 대기록 달성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2월 25일(금), 215비행교육대대의 9만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수립을 축하하는 행사를 거행했다. 이 기록의 달성은 '87년 9월 29일부터 2000년 2월 25일까지 12년 5개월여 만의 쾌거로서 평소 비행사고 「0」를 목표로 전장병이 일치 단결하여 세운 기록

이며, 거리로 환산하면 3,700만 Km로 지구를 약 1,000여 바퀴 비행한 거리에 해당된다. 특히, 215대대는 중등비행훈련을 주임무로 하고 있어 아직 숙련되지 않은 조종 학생들의 단독 비행과 다수 훈련기의 동시 비행 등이 달성된 기록이어서 더욱 값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서울에서 가장 넓은 예식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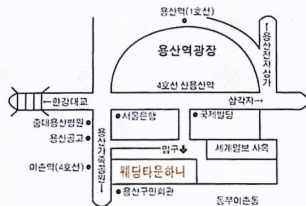
# 웨딩타운하니



이 구 복 사장

## 공군(예비역, 현역) 특별 우대 할인혜택

- ▣ 1만 2,000평 대지 위에 자연과 함께 어우러진 900대 동시 무료 주차시설
- ▣ 단독 건물별 넓고 여유로운 예식홀(400석/250석)
- ▣ 2,00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여유로운 대·소 연회장



**예약문의**  
**790-0053**

인터넷 이용 예약시 특별 할인혜택  
<http://www.honey.co.kr>

● 지하철 4호선[신용산역 국제빌딩 출구]-도보 5분 거리-순환버스 운행



(10면에서 이음)

Table listing members and their contributions. Columns include member names (e.g., 김상태, 박재성), amounts (e.g., 27기, 10만원), and cumulative totals (e.g., 48기 : 102명, 총 : 741명).

찬조금 보내주신 분 감사합니다 (199. 7. ~ 00. 3. 까지)

Table of donors and amounts. Includes names like 김상태, 박재성, 김동호, and amounts such as 300만원, 100만원, 10만원.

Table of donors and amounts. Includes names like 김상태, 박재성, 김동호, and amounts such as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揭 示 板

平生會費 納付 평생회비는 10만원입니다. 미납하신 회원(예비역, 현역)은 직접 또는 각 동기회를 통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예비역 이구목 사장이 운영하는 "웨딩타운하니"에서는 공군의 현역 및 예비역에 대하여는 특별 우대 할인 혜택을 주고, 많은 편의를 제공한다고 하니 회원님들의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編 輯 後 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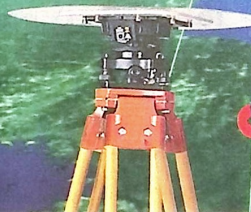
1. 會報의 편집방향은 同門消息과 會員動靜에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많은 玉稿가 지면 관계로 이번 17號에 게재 못하였으며, 이를 원고는 다음 18號에 게재토록 하겠사오니 앞으로 동문회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기고 바랍니다.

# 지적측량 새천년

대한지적공사는 인공위성을 이용한 첨단 측량으로  
고객중심의 서비스 시대를 열어갑니다



친절, 신속, 정확



대한지적공사  
Korea Cadastral Survey Corp.